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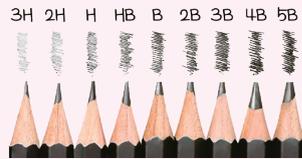
## 04 드로잉에 빠져들다

### » 드로잉의 종류

- 크로키: 순간의 인상을 빠르게 그리는 기법이다.
- 스케치: 작품 제작 전에 그리는 대략적 밑그림
- 소묘: 대상의 형태를 단색의 선으로 그리는 기법이다.
- 정밀 묘사: 대상의 세부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리는 기법이다.
-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: 종이를 보지 않고 대상의 형태를 끊기지 않는 한 선으로 그리는 기법이다.
- 스크리블드 라인 드로잉: 마치 거미줄이 얽혀 있듯이 구불구불한 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대상의 형태를 그리는 기법이다.

### » 드로잉의 재료

- 연필: 부드러운 질감, 섬세한 표현, 명암 조절과 수정이 쉽다. 심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, 진하고 연한 정도가 다양하다.
- 펜: 가늘고 날카로운 선 표현이 가능하지만 수정, 보완이 어렵다. 펜촉의 굵기나 모양이 다양하다.
- 목탄: 색조가 풍부하고 질감을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지만 가루 날림과 번짐이 심해 정착액이 필요하다.
- 붓(물감): 손의 압력과 물의 양을 조절하여 굵기를 달리하고 농담을 표현할 수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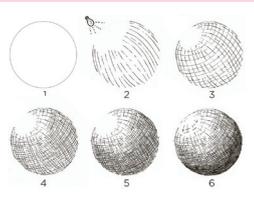
▲ 연필의 다양한 경도, 농도



▲ 자연 목탄

### 크로스 해칭 기법

색면을 칠해 명암을 표현하지 않고 가는 선을 방향을 바꿔 가며 겹쳐 쌓아 밝고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는 드로잉 기법이다.



## 05 다양한 회화의 세계

### » 다양한 인물화의 종류

- 대상: 초상화, 자화상, 군상화
- 부위: 두상화, 흉상화, 반신상화, 전신상화
- 자세: 좌상화, 와상화, 입상화

### » 다양한 표현 용어

- 전신 사조(傳神 寫照): '전신'은 정신을 전한다는 뜻이고, '사조'는 베끼어 비춘다는 뜻이다. 초상화를 그릴 때 인물의 외형 묘사뿐만 아니라 인격과 내면세계까지 담아내는 것을 중시한 용어이다.
- 데포르마시옹(déformation): 변형, 왜곡이라는 뜻으로 대상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그리는 방법이다. 회화뿐만 아니라 다른 미술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.

### » 인물화의 다양한 표현 방법

비율 변형, 다시점, 색상 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물을 표현할 수 있다.



▲ 몽크(Munch, Edvard/노르웨이/1863~1944) 절규(판지에 유화, 템페라, 파스텔/91×73.5cm/1893년)



▲ 보테로(Botero, Fernando/콜롬비아/1932~2023) 발레 바의 무용수(캔버스에 유화/164×116cm/2001년)



▲ 피카소(Picasso, Pablo/에스파냐/1881~1973) 도라 마르의 초상화(캔버스에 유채/92×65cm/1937년)

### » 정물화의 화면 구성 요소

- 구도: 원형 구도, 삼각형 구도, 마름모 구도, 일직선 구도
- 시점: 단일 시점, 다시점
- 빛과 그림자



▲ 피시(Fish, Janet/미국/1938~ ) 허브티(1995년)

### » 바니타스 정물화의 다양한 상징

- 바니타스는 16~17세기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지역에서 유행한 정물화의 주요 주제이다. '덧없음', '헛됨'을 상징하는 세속적인 물건들로 구성된 그림이다.



▲ 콜리에르(Collier, Evert/ 네덜란드/1640~1708) 책과 필사본과 두개골이 있는 정물(캔버스에 유채/70×56.5cm/1663년)

### • 바니타스 상징

- 해골: 피할 수 없는 죽음
- 시계: 인생의 짧음
- 책: 지식의 무용함
- 악기: 인생의 간결함과 덧없음
- 썩은 과일: 부패

### »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

- 선 원근법: 3차원의 공간과 대상을 소실점을 활용하여 평면에 표현하는 방법. 소실점 개수에 따라 1점 투시, 2점 투시, 3점 투시로 나뉜다.
  - 소실점: 고정된 시점에서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물체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선들이 모이는 점이다.
- 공기 원근법: 눈과 대상 사이에 있는 공기층이나 빛의 작용으로 생기는 색채와 윤곽의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. 먼 곳에 있는 사물의 색은 흐릿하게, 가까이 있는 사물의 색은 선명하게 표현한다.

- 삼원법: 동양 산수화에서 자연을 화폭에 담아내기 위해 사용된 공간 표현 방법. 심원, 평원, 고원으로 나뉜다.
  - 고원: 산 아래에서 산꼭대기를 올려다보는 시점
  - 평원: 가까운 산에서 먼 산을 바라보는 시점
  - 심원: 산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점

## 06 상상과 추상의 회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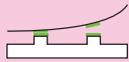
### » 초현실주의와 표현 기법

- 초현실주의: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 영향을 받아 현실을 초월하여 자유로운 상상을 추구하는 미술 사조이다. 자동기술법, 데페이즈망 기법 등으로 이성적 사고를 거부하려고 했다.
  - 자동기술법: 익숙한 기법이나 이성의 영향을 배제하고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리는 기법이다.
  - 데페이즈망(dépayement): ‘추방’이라는 뜻이다. 일상적인 관계에서 사물을 추방하여 전혀 관계없는 대상을 한 공간에 함께 두는 기법이다.

## 07 판에서 피어나는 그림

- 판화: 판을 만들어 인쇄하는 간접 회화

### 볼록 판화



- 판을 만들고 볼록한 부분에 잉크를 묻혀 찍어 내는 기법
- 강렬한 대비 효과가 특징이다.
- 목판화, 고무 판화, 콜라그래피 등

### 오목 판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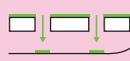
- 매끈한 판에 미세한 선과 점으로 흠집을 내어 잉크가 고이게 한 뒤 찍어 내는 기법
- 인쇄 시 강한 압력이 필요하다.
- 직접법: 드라이포인트, 메조틴트
- 간접법: 에칭, 애퀴틴트

### 평판화



- 새기거나 깎는 과정 없이 평평한 판에 안료를 올려 바로 인쇄하는 방식
- 인쇄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회화 표현이 가능하다.
- 석판화, 모노타이프 등

### 공판화



- 판에 구멍을 뚫은 뒤 잉크를 통과시키는 기법
- 원화의 좌우가 바뀌지 않는다.
- 스텐실, 실크 스크린 등

## 08 공간 속 아름다운 입체

### » 조소란 무엇인가?

3차원의 공간에 재료를 깎거나 빚어서 입체 형상을 만드는 조형 예술이며 조각과 소조로 나뉜다.

- 조각: 목조, 석조 등 단단한 재료를 외부에서 내부로 깎아 표현하는 활동
- 소조: 점토나 유토 등 가소성이 있는 재료를 내부에서 외부로 살을 붙여 표현하는 활동
- 인체 조소의 다양한 종류
  - 부위: 두상, 흉상, 반신상, 전신상, 토르소
  - 자세: 입상, 좌상, 와상
  - 표현 방식: 부조, 환조, 심조, 투조

### » 조소의 확장

- 정크 아트: 일상생활에서 나온 폐품을 소재로 제작한 미술 작품
- 아상블라주(asssemblage): ‘수집, 조합’이라는 뜻이다. 폐품이나 일상 용품 등 다양한 물건을 한데 모아 제작하는 기법이다.
- 모빌(mobile): 가느다란 실, 철사 등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쇠조각이나 나뭇조각을 매달아 미묘한 균형을 이루며 움직이는 조각
- 키네틱 아트(kinetic art): 미술 작품 자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부분을 넣은 예술 작품
- 라이트 아트(light art): 빛의 효과를 살려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창조하는 예술 작품
- 콤바인 페인팅(combine painting): 일상의 모든 사물과 버려지거나 파기된 것을 회화에 접목한 일종의 확대된 개념의 콜라주 기법
- 퍼포먼스(performance): 신체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예술. 사람의 몸이 곧 매체가 되어 무대 중앙에 서기 때문에 성, 인종과 관련한 주제, 자신과 타인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.
- 레디메이드(ready-made): 실용성이 있는 ‘기성품’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지닌 작품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.

### 〈아상블라주〉



◀ 아르망 (Arman/ 프랑스→미국/ 1928~2005)  
장기 주차 (59대의 자동차, 1,600톤의 시멘트/ 600×600×1,800cm/1982년)

### 〈키네틱 아트〉



▲ 안센(Jansen, Theo/네덜란드/1948~) 아나마리스 우메루스(PVC 파이프, 케이블 타이/1,200×200×400cm/2009년)

### 〈퍼포먼스〉



▲ 알리스(Alys, Francis/벨기에/1959~) 때때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(퍼포먼스/1997년)

### 〈콤바인 페인팅〉



▶ 라우선버그 (Rauschenberg, Robert /미국/1925~2008) 코카콜라 플랜 (혼합 재료/ 67.9×64.1×12.1cm/ 1958년)